불 교 총 지 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5년
2016년 11월 2일
음력 10월 3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204호

종단의 중흥은 종조님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총지종 제88회 추계강공회 및 승단총회 개최

▲ 효강 종령 예하의 법어를 듣는 동참 스승들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 '색심불이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 쌍수로 사리를 구현함으로서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의 윤원대도를 얻게 함이다."

불교총지종 효강 종령 예하가 제88회 추계강공회 정신교육에서 스승들께 강조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의 정신이다.

일상교화에 매진하는 스승들에게 총지종의 소의 경전과 수행 전통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인 제 88회 추계강공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문경에서 열렸다.

〈2면에 계속〉

불교총지종 집중수행도량

괴산 중원사 헌공불사 봉행

10월 25일 불교총지종 집중수행도량 괴산 중원사 헌공불사가 봉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와 인선통리원장 및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했다. 헌공불사는 통리원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와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정통밀교 총지종의 의궤에 따라 진행됐다.

본존 개막에 이어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중원사는 총지종 수련원으로 시작하여 오늘 집중수행도량으로 부처님 전 헌공하게 되었습니다. 총지종은 사원이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스승님들이 교도들과 함께 수행합니다. 교화와 수행의 병행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중원사는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일상을 내려두고 밀교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도량으로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집중수행으로 모든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고, 중원사의 불공 수행 원력으로 불국토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라고 설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에서

▲ 헌공불사를 봉행하는 중원사 서원당

"중원사가 수행 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스승님과 교도들이 집중수행에 들 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며 수행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약속했다. 총지종 집중수행도량 중원사는 1985년 부지를 구입하여 그동안 교도 및 청소년 수련 시설로 사용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2012년 5월 총지 수련원내에 사원을 신설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종단의 기도 도량으로서 활용하기로 방안을 잡고 먼저 중원사로 명칭을 정했다. 중원사=김초랑 기자

주소: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산13번지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 영파대회' 봉행

국제학술강연회에서 '공용한자 808자의 확산' 제안

▲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 교류대회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계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12일 오전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를 주제로 중국의 5대 불교 명산 중 하나인 미륵도량 중국 절강성 영파 설두사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국불교협회 회장 학성스님, 일중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다케카쿠초 스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통리원 총무부장 우인 정사,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유지재단 사무국장 서강 정사 등 총 한국 측 대표단을 포함한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3국의 불교지도자 스님들은 부처님 전에 3국의 불교발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3국 불교교류를 돈독히 하며, 함께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이어서 개최된 대회 개막식에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장 왕작안(王作安), 절강성 통전부장 왕영강(王永康), 영파시 통전부장 양입평(楊立平) 등이 참석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불교교류를 통한 3국의 우호발전을 축하하였다.

오후 영파 관퍼시픽 호텔에서 진행된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 - 동북아 불교교류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회가 열려 한국불교를 대표해, 부회장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의 기조연설, 원철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과 도각스님(관음종 총무부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면안내

1면 제88회 추계강공회 봉행
2면 수행체험기 '동사섭' 수행
3면 종단 주요 불사
4면 강공교학강의 아자관과 월륜관 수행
5면 강공교학강의 람자관 의 경전 근거와 관법
6면 한중일불교교류대회 화보
7면 10월 주요 불사 화보
9면 불교계 주요소식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계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계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이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1면에 이어

총지종 기로 및 현직 스승 전원이 참석한 이번 강공은 개강법회에 이어 효강 종령 예하 정신교육,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와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의 교학 강의, 대전 만보사 묘원화 전수의 수행체험 발표, 승단총회, 종강불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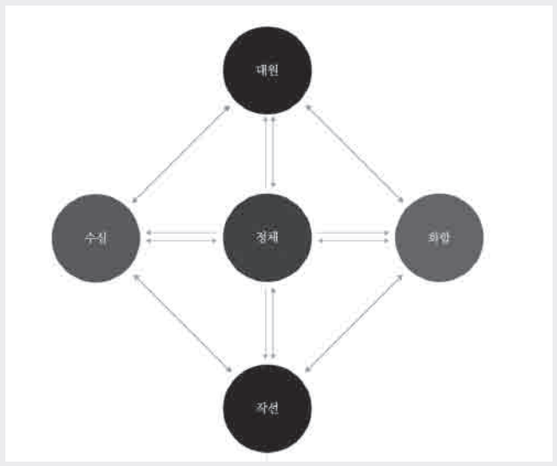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와 정신교육에서 "전국의 사원에서 교화에 매진하시는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스승의 본분입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을 본존으로 하여 대승장엄 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태금양계의 모든 경궤를 보조 경전으로 하여,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며 '당상즉도', '색심불이'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로 사리를 구현함으로서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의 윤원대도를 얻게 한다.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재생의세하는 법이 다름으로 특히 이원진리를 밝혀서 물심병진법을 가르치는 한편 시시불공, 처처 불공법으로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서 교상을 확립 입교교의를 이에 두었다."고 교시하셨다며 총지종의 다가오는 100년, 200년을 준비하는데 스승과 교도들의 기본 마음을 종조님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시대에 맞춰교도들을 대하는 사고도 달라져야 하므로 새로운 교화 방편을 강조했다. 10월 26일 오후에 개최된 승단총회에서는 총무부장 우인 정사가 종조공덕탑 건립, 교정부장 법일 정사가 세계최초 사종관 좌종 제작 과정 보고와 정사 및 전수님들의 평상복 개정을 위한 시연과 통리원 실무자들의 종단의 주요 현황 보고가 있었다.

문경= 김종열 기자

수/행/체/험/기

동사섭 수행의 원리를 배우다
함양 행복마을 동사섭 수련



▲ 동사섭의 원리

성도합시다.

저는 올해 하반기 49일 불공을 마치고 삼밀사 혜원정 스승님과 함께 경남 함양에 있는 행복마을에서 운영하는 동사섭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5박 6일간 체험한 생활 불교의 울림이 저 개인의 감동을 넘어 만보사와 개공스(개천사에서 공부하는 스승님들의 모임)에까지 미침을 보고 종단 전체 스승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스승의 사명"에서 스승은 성직자(聖職者)로서 바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교화에만 머물지 말고 대아(大我)적인 위치에서 종단과 국가, 민족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먼저 스스로 마음공부 잘하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단결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현세정화를 위해 정진하여 종단의 유구한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동사섭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삶의 5대 원리 정체(正體 바른 가치관 정립), 대원(大願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해탈), 수심(修心 평화로운 마음), 화합(和合 서로간의 우호감 증대), 작선(作善 자신이 맡은 역할 수행, 베풀기)과 같은 내용입니다.

동사섭 프로그램은 용타 스님께서 1980년 겨울에 시작하여 지난 37년간 꾸준히 실시하여 2만명 이상의 수련생을 배출하였고, 2015년에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불교 성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현재 "스님들을 위한 지도자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 과정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하여 카톨릭, 기독교에서 수녀님과 목사님들도 참여하시고 종교를 갖지 않는 일반인들과 19세 대학생들부터 80에 이르신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실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배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有情)들은 누구나 행복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화가 잘 되고, 자녀가 잘 자라고, 사업이 번창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娑婆)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바세계를 극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마음공부가 필수입니다.

행복이란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좋은 느낌입니다. 결국 행복은 원만하고 화합되는 인간관계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의 상태가 바로 '해탈 열반'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합니다.

부처님은 깨닫기 위해서는 고집멸도의 4성제의 이치를 알아야 하며, 그 실천법으로 8정성도, 6바라밀, 3학 등의 많은 방편법을 제시하셨습니다. 8정성도에서 첫 번째가 정견(正見)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므로 첫 번째로 제시되었습니다. 가치관이란 마음가짐,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승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엄마로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딸로서

▲ 대전 만보사 묘원화 전수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놀부 심보를 가지면 놀부처럼 살게 되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도둑놈으로 살게 됩니다. 기왕 총지종의 보살도를 수행하고, 총지종의 스승이 되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절의 주인이 되어 내 가족, 우리 사원 신도 뿐 아니라 우주 전체의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마음공부를 점검하고, 서로 간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스승으로써 교도로써 엄마로써 아내로써 맡은 바 자기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언제 어디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당당하고 편안하여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옴마니반메훔' 용맹 정진하여 지금 여기서 해탈 이루고 행복하게 삽시다!

동해중 불교어머니회 가을 산사순례

10월 29일 지리산 주요 사원 참배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어머니회는 10월 28일 지리산 벽송사, 서암정사, 실상사 로 삼사 순례를 다녀왔다.

불교어머니회 회장 임화정(3학년 심정보 학생 자모)외 30여명이 동참한 이번 산사 순례는 민족의 영산이 지리산의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산사의 아름다움과 불법의 진리를 다시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임화정 회장은 "불교어머니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학교의 발전과 자녀와 가정의 평안을 함께 기원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며 가을 산사 순례와 법회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 서원했다.

동해중 졸업생 장학금 일천만원 기탁

24회 졸업생 김희철 씨 군생활 퇴직금으로

종립 관음학사 부산 동해중학교(교장 탁상달)는 지난 10월 17일 제24회 졸업생 김희철 씨로부터 자신의 군 퇴직금 1,000만원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 받았다.

동해중학교 교장실에서 이뤄진 장학금 기탁식에서 탁상달 교장선생님은 "부산 시내 어느 학교 보다 선. 후배 간의 유대감이 제일 강한 것으로 유명한 동해 중학교 제24회 졸업생 김희철 군이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을 위해 기탁한 뜻을 높이 기립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희철 씨는 "제 인생에 있어 자립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이 동해 중학교 재학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상한 가르침과 즐거웠던 친구들의 추억은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장학금을 관리 운영 할 계획이다. 동해중학교=김재근 교감선생님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관성사	인 선	10/21	20,000	밀인사	정정희	9/28	5,000	하재희	10/25 50,000
기로스승	대 관	10/21	10,000		이기상	10/15	10,000	하재희	9/26 50,000
	해 정	10/21	10,000		안옥진	10/15	10,000	김지영	10/25 10,000
	해 정	9/26	10,000		이성수	10/15	10,000	운천사 무명씨	10/19 20,000
	심지장	9/26	10,000		박주연	10/15	10,000	반야화	10/18 50,000
	원 봉	10/19	10,000		이수연	10/15	10,000	정각사 변순개	10/6 10,000
	지선행	10/21	10,000	만보사	정덕순	9/28	10,000	탁상달	10/25 20,000
	밀공정	10/21	10,000	벽룡사	양정현	10/7	10,000	조성화	10/25 10,000
	법수원	10/21	10,000		권혁민	10/7	10,000	지인사 승효제	10/19 10,000
	법지원	10/21	10,000		양지현	10/7	10,000	허성동	10/24 30,000
	불멸심	10/21	10,000	실지사	조성우	10/4	10,000	초록어린이집	
	사홍화	10/21	10,000	수인사	정순득	10/17	10,000	황화성	9/26 30,000
	상지화	10/21	10,000		무명씨	9/27	10,000	황화성	10/25 30,000
	수증원	10/21	10,000	선립사	황귀선	10/5	10,000	총지사 법 등	10/4 30,000
	선도원	10/21	10,000		심지장	10/18	10,000	손경옥	10/17 10,000
	총지화	10/21	10,000	일원어린이집				혜정사 최영례	10/19 10,000
	안주화	10/21	10,000		구미자	9/30	10,000	정은선	10/4 10,000
	일성혜	10/21	10,000		김용미	9/26	10,000	화음사 무명씨	10/5 10,000
개천사	강순시	10/19	10,000		김용미	10/25	10,000	송하나	10/19 10,000
	황귀선	10/5	10,000		이준동	10/25	10,000	흥국사 지 정	10/19 20,000
	전세형	10/5	30,000		이준동	9/26	10,000		

사원명무기명
박미경 10/18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총지종 제162회 중앙종의회 개최

총기46년 예산안 심의 및 주요 사항 의결

▲ 통리원 반야실에서 열린 제162회 중앙종의회

불교총지종 총기45년 제162회 중앙종의회가 10월 19일 오후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됐다.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정사는 개회법회에 이어 개회사에서 "중앙 종의회는 총지종의 한해 살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다음해 예산은 적절히 편성됐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위원여러분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 안건들이 결정 될 수 있도록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며 종의회 위원들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기를 당부했다.

통리원 총무부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각 부서 부장과 담당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회의는 총기 45년 추경예산안과 총기46년 예산안 심의, 촉탁 및 연장근무자 심의 의결, 정각사 인근 상가 매입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종의회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하고 10월 25일 저녁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마무리했다.

통리원= 김초랑 기자

총기45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 봉행

10월 25일 불교 총지종 집중수행도량 괴산 중원사 에서 열반스승 추선불사가 봉행되었다. 추선불사에는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 인선 통리원장, 수현 중앙종의회 의장, 우인 총무부장, 원당 재무부장, 중앙종회 의원 전국 사원 스승 및 중원사, 청주 혜정사 교도들이 동참 했다.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와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불사는 개식사, 대비로자나불전호념, 훈향정공, 무상게 독송, 유가삼밀과 광명진언, 실지정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선불사는 총지종 발전과 교화의 밑거름이 된 열반스승님들에 대한 왕생성불을 추념하는 불사다. 올해는 집중수행도량 괴산 중원사 헌공불사와 함께 봉행 됐다.

괴산 중원사=김초랑 기자

총기 45년 '신규스승 법의 및 금가사 수여식' 봉행

신임 남혜(장동욱), 현일(이대진) 정사, 혜음(강세영), 자성(김안나) 전수 임용

▲ 신규 스승을 대표해 입사선서를 하는 남혜 정사

총기 45년 '신규스승 법의 및 금가사 수여식'이 10월25일 괴산 중원사에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봉행된 수여식에서 남혜(장동욱), 현일(이대진), 혜음(강세영), 자성(김안나) 시무가 신규스승으로 임용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께서 법의와 금가사 및 행위승서를 수여하셨다. 인선 통리원장은 신규스승들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각 각의 소임을 명 하였다.

남혜 정사는 입사 선서를 통해 계법을 준수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교법과 국법을 엄수하고, 또한 보살의 행원으로 삼세중에 중생제도를 버리지 않고, 이를 위해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이를 극복하겠다고 엄숙히 선서 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총지종에 새 정사들이 임용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신규 스승사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행은 버리고, 환골탈태하여 중생교화에 앞장서 달라고 신규 스승님들께 당부 하셨다.

통리원= 권혁준 계장

밀교연구소 토사(土砂) 및 좌종(坐鐘) 가지불사(加持佛事) 봉행

▲ 가지불사의 비밀의궤를 봉행하는 인선 통리원장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 법천사 주교)는 지난 10월 18일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토사(土砂) 및 좌종(坐鐘) 가지불사(加持佛事)'를 밀교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날 가지불사는 법경 밀교연구소장의 집공과 인선 통리원장의 비밀의궤 집전으로 이루어졌으며, 승단의 스승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가지불사는 불보살의 위신력을 불어넣는 밀교의식으로서 불상을 모시는 일종의 점안불사(點眼佛事)와 같은 성격이다. 이 가운데 토사가지는 부처님의 광명진언을 외우며 토사에 부처님의 위신력과 광명진언의 가지신력을 가미하며 그 공능과 생명력을 불어 넣는 의식이다. 가지된 토사를 가지토라 하며, 일반 흙과 다르다. 이 가지토를 망자의 시신이나 관, 또는 묘소 등에 뿌리면 망자(亡者)가 극락왕생하게 된다. 특히 토사가지불사는 『불공견색신변진언경』에 근거하여 광명진언과 함께 8종 비밀인(秘密印)으로써 행해졌다. 좌종(坐鐘)은 법회 가운데 '람'자를 관할 때 사용되는 법구이며, 불보살의 위신력을 가지함으로써 정식 법구로 쓰이게 된다.

총지종 출판물 감수위원 위촉

고문 법공 기로스승 외 6명

▲ 총지종 출판물 감수위원회 위촉식

불교총지종 효강 종령 예하는 10월 26일 개최된 승단총회에서 총지종의 사상과 교상에 근거한 출판물들의 생산 배포를 위해 종단 출판물 감수위원을 위촉했다.

법공 기로스승을 고문으로 화음사 법수연 전수, 전주 흥국사 지정 정사, 대전 만보사 승원 정사, 밀양 밀행사 도현 정사, 영천 단음사 지현 전수, 성남 법천사 덕현 전수가 위촉 됐다.

총지종 출판물 감수위원회는 총지종에서 생산 배포되는 모든 출판물의 감수를 통해 종조 원정 대성사가 세운 입교개종의 정신이 온전히 전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감수위원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종단의 백년대계와 위의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출판물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서울경인교구, 총지종사회복지재단에 복지기금 전달

▲ 서울 · 경인교구 복지기금 전달식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법경 정사, 법천사 주교)는 지난 10월 26일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 복지기금을 전달했다. 복지기금 전달은 제88회 추계강공회 일정 중에 열린 서울경인교구회의에서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 보시하기로 결의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기금은 지난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법회에서 모금된 보시금으로서, 일부는 서울경인교구 내의 사원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교도 가정을 돕는 데 쓰였고, 그 나머지 보시금 전액을 복지재단에 보시하기로 한 것이다. 인선 통리원장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은 보시금을 종단의 복지재단에 보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좋은 일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법경 서울경인교구장은 "보시행이야말로 참다운 불공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복지기금의 의미를 밝혔다.

총지종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편찬 : 불교 총지종 밀교연구소(비매품) / 발행 : 불교 총지종
인쇄 : 동림기획 / 면수 : 총 258쪽

각종 축원(祝願)을 위한
『발원문 및 법문집』

"화도방편(化度方便) 가운데 제일이 불공이며,
불공 가운데 으뜸이 간절한 발원과 여법한 법문이다"

"발원문과 법문은 법향(法香)이나 감로수(甘露水)와 같은 것으로, 망자(亡者)와 생자(生者) 모두를 청정일념(淸淨一念)에 들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각종 불공 발원문 및 법문집』에는 새해 불공 발원문을 비롯하여 각종 서원성취 불공, 결혼, 출산, 생일, 기제불공 등 총 30여 종의 축원불공 관련 발원문과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88회 추계강공회 교리강의

𑖀(아)자관, 이렇게 닦는다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우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땅밑으로부터 자기 몸으로 들어와 '아' 소리를 통하여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는 방법

아(𑖀)자관은 글자 그대로 범어 아(𑖀)자를 관하는 것으로 이 아자에 실린 본불생(本不生)의 이치를 체득하여 속히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밀교의 가장 중요한 관법 중의 하나이다.

이 관법은 『대일경』에서 설하고 있는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명상법으로서, 즉신성불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밀교 독자의 비밀유가삼마지법(秘密瑜伽三摩持法)이다.

이 아자관은 아자월륜관(阿字月輪觀), 정보리심관(淨菩提心觀) 또는 일체속질력삼매(一切速疾力三昧)라고도 일컬어진다. 한마디로 아자는 본불생이라는 우주의 근본 진리를 상징하며 동시에 그것은 대일여래 그 자체를 상징한다.

아자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통 그 예비단계로서 아식관(阿息觀)과 월륜관(月輪觀)을 행한다. 관법을 행하는 장소는 조용할수록 좋다.

그리고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곳이라야 한다. 너무 밝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너무 어두우면 잡념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동트기 직전과 같은 밝기가 갖추어진 곳이 가장 적당하다. 야간에 불을 켜야 할 경우에는 자기의 등 뒤에서 본존을 향하도록 불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 좋다.

본존은 크기에 다라 다르겠지만 지름 1자 정도의 월륜이 있는 것이라면 자기 몸과 3자 정도 떨어진 곳에 걸어 놓는데, 본존의 연화 아랫부분이 행자의 배꼽 정도 위치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좌석은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것은 좋지 않다. 엉덩이 부분을 약간 높이면 척추가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하여 자리가 정해지면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몸을 좌우로 몇 번 흔들어 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고 귀와 어깨가 평행이 되도록 한다. 턱을 약간 당긴 다음 자기의 코끝을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눈을 반쯤 뜬다. 눈을 너무 뜨면 마음이 산란하여 집중하기가 어렵고 완전히 감으면 졸음이 오거나 망념이 들기 때문이다. 이때 손은 법계정인(法界定印)을 결한다.

아식관은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호흡(呼吸)'이라는 말처럼 먼저 숨을 크게 내쉰다. 눈을 반쯤 감고 코 끝을 내려다보면서 처음에는 입을 가볍게 열고 몸 가운데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기분으로 서서히 공기를 토해낸다. 아식관은 이 때에 '아'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우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땅밑으로부터 자기 몸으로 들어와 '아' 소리를 통하여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는 방법이다.

숨을 내어 쉴 때는 배가 움푹 들어가도록 하며 숨을 들이 쉴 때는 코로써 천천히 맑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배를 부풀리어 맑은 기운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는 기분을 느끼도록 한다. 다시 내어 쉴 때에는 '아'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끝에 이르는 곳에서 본불생, 무한실상의 세계를 관한다. 이때부터는 아식관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코로만 호흡하면서 월륜관에 들 준비를 한다.

월륜관은 아자관에 들어가기 전의 예비단계로서 초심자는 월륜관에 충분히 숙달된 다음 아자관에 들면 좋다. 월륜관은 글자 그대로 둥근 달을 마음에 관하는 것이다.

달은 밀교에서는 청정(淸淨), 원만(圓滿), 청량(淸凉), 명조(明照)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맑고 분명한 달의 이미지를 가슴에 품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달처럼 밝고 청정하며 원만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앞에 놓인 아자의 본존을 바라보면서 월륜을 떠올리다가 그 잔상이 흐려지면 다시 아자본존의 월륜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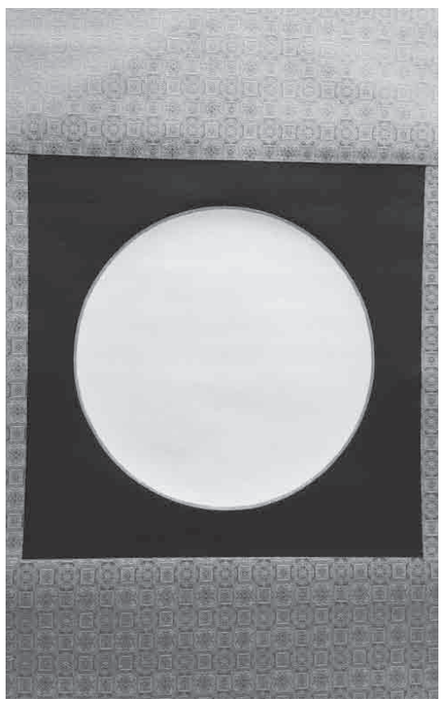
내 마음이 월륜처럼 청정하고 원만하며 밝다고 관해지게 되면 월륜관의 첫 단계가 끝난다. 이처럼 본존의 월륜을 나의 가슴에 품는 것이 끝나면 이번에는 거꾸로 내 마음에 담겨있는 달을 되돌려 본존에 갖다 놓는다. 이러한 식으로 1회에 약 15분 정도 월륜관을 행한다.

이러한 것을 반복하여 경험이 쌓이면 다음에는 확장관(擴張觀)과 수렴관(收斂觀)을 행해 본다. 확장관은 마음 가운데에 있는 달을 조금씩 크게 만들어 가는 것인데 월륜이 환하고 은은한 빛을 내면서 그것이 점점 커져 나의 몸을 덮고 나의 집을 덮고 온 나라, 온 세계, 온 우주를 비추는 것처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관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불이(不二)이며 일여(一如)의 세계인 것이다.

다음에는 이렇게 커진 달과 그 광명을 조금씩 작게 하여 원래의 상태대로 나의 마음에 갈무리 하는 것이 바로 수렴관이다. 이 확장관과 수렴관은 정식으로 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좌법과 호흡법이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아자관



▲ 월륜관

이렇게 하여 월륜관이 자유롭게 되면 아자관에 들어간다. 아자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정한 자신의 마음에 대일여래가 자태를 나타내고 나의 마음과 대일여래가 하나가 되는 이미지를 가짐으로서 본불생의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다.

먼저 본존의 월륜을 가슴에 넣고 그 위에 아자와 연화를 올린다. 연화는 붉은 색이 서린 흰색 연잎, 아자는 금색으로 떠올린다. 아자와 연화의 형상이 흩어지면 다시 앞에 놓인 본존을 잠깐 보고 이미지를 계속 떠올린다.

이렇게 하여 날을 거듭하여 마음 속의 본존이 명료하게 모양을 이루면 그것을 다시 가슴에 갈무리 했다가 눈 앞의 괘축 본존으로 돌려놓는 연습을 거듭한다.

말하자면 아자를 통한 대일여래의 이미지를 가슴에 품어 대일여래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대일여래에게 들어가는 것이 곧 성자실상(聖字實相)의 입아아입관(入我我入觀)이다. 이러한 것을 반복하여 행하면 본불생의 이치가 체득되고 이 몸으로서 즉신성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자관의 궁극이다.

이 밖에도 아자관을 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출을 보고 아자관을 행하기도 하고 실제 달을 보면서 행할 수도 있다. 또는 월륜관에 아자 대신 여러 가지 종자를 변화시키며 관하는 방법 등도 있다.

불교의 모든 관법을 단 하나의 종자(種字) 𑖀자로써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자관을 일자선(一字禪)이라고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복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제88회 추계강공회 교리강의

람( ) 자관의 경전 근거와 관법(觀法)

강의 :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

"람"자관은 번뇌망상을 없애는 진언종자의 관법이다.
"람"자를 관함으로써 번뇌망상을 없애고 선정에 들어 청정법계를 이루게 된다.

▲ '람'자는 경전과 수법(修法)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청색삼각단에 백색 람자는 『대일경』 과『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한 것으로, 사종수법의 항복법에 쓰이는 람자이다.

▲ 둥근 백색 원단(圓壇)에 적색 '람'자는 『대일경』 과『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총지종에서 염송할 때 관하는 '람'자이다. '람'자에서 명주(明珠)와 만월(滿月)같은 밝은 빛이 나고, 다시 '람'자가 붉은 적색으로 변하여 번뇌망상을 없앤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람'자를 관하고 있다.

▲ '람'자를 관할 때는 양손으로 '대삼매인(大三昧印)'의 수인(手印)을 맺는다. 이 수인을 '대삼매야인(大三昧耶印)', '삼매야인(三昧耶印)'이라고도 한다. 대삼매인을 결함으로써 진언행자 자신은 깊은 삼매에 들게 된다.

밀교의 수행법은 삼밀수행이다. 삼밀수행은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는 밀교의 비밀수행법으로,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몸[손]으로는 행하는 결인과 뜻[마음]으로 행하는 관법을 말한다. 이를 신밀·구밀이라 한다. 그래서 삼밀이다.

삼밀을 통해 중생은 부처되기 위해 수행하면서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화도방편(化導方便)을 펼친다. 이를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로 설명하고 대승보살의 수행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과도 맞닿아 있다.

이 가운데 의밀(意密)의 관법은 아주 중요하다. 선정(禪定)에 들게 하는 의궤법이기 때문이다. 총지종은 신밀(身密)인 결인과, 구밀(口密)인 진언, 의밀(意密)의 관법을 모두 갖추어 수행하고 있다. 총지종의 관법수행은 무엇이 있는가.

혹자는 관법은 중요치 않고 오로지 진언수행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삼밀이 모두 중요하다. 때에 따라 경전에서는 일밀(一密) 또는 이밀(二密)을 설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것이 삼밀이다.

사밀 가운데 특히 진언수행을 매우 중요시 하여 최상승의 수행이라고 『대일경』에서 교설하고 있지만, 의밀의 중요성 또한 그에 못지 않다.

정신이 맑지 않으면 결인과 진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의밀의 관법도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총지종에서 행하고 있는 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진언종자를 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대상을 관하는 것이다.

전자를 종자관(種子觀), 월륜관(月輪觀)이라 하며 '람'자관과 호마의 사종법(四種法)의 진언종자를 관송(觀誦)하고 있다.

후자는 어떤 특정대상을 관하는 것으로는 본존관(本尊觀), 만다라관(曼荼羅觀)이 있다. 본존(本尊)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이며 이를 외우며 관(觀)하는 것이다.

만다라관은 양부만다라를 관하는 법과 진호국가불사의 수호국계주진언을 관하고 오방(五方)의 오불(五佛)과 사방(四方)의 사보살(四菩薩)·사대명왕(四大明王)·사대천왕(四大天王)을 관하는 법이다.

종조 원조 대종사의 재세시이자 창종 당시부터 행해왔던 관법이다. 종자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람'자관이다. '람'은 여러 경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총지종의 지송의궤(持誦儀軌)로서 자세하게 설해지고 있는 것은 오직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이다.

여기에는 '람'자를 비롯한 다양한 진언과 종자들이 설해지고 있다. 총지종의 '불사의궤(佛事儀軌)' 법요집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총지종의 소의경전이 『대일경』『금강정경』『대승장엄보왕경』『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이라고 한다면,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은 총지종의 소의의궤서(所依儀軌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람'자를 관하고 있다. '람'자는 경전마다 내요이 조금씩 다른데, 특히 '람'자의 색상(色相)과 단(壇)의 모양, 단(壇)의 색상들이 똑같지 않다. 이 가운데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내용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맞추어 관법을 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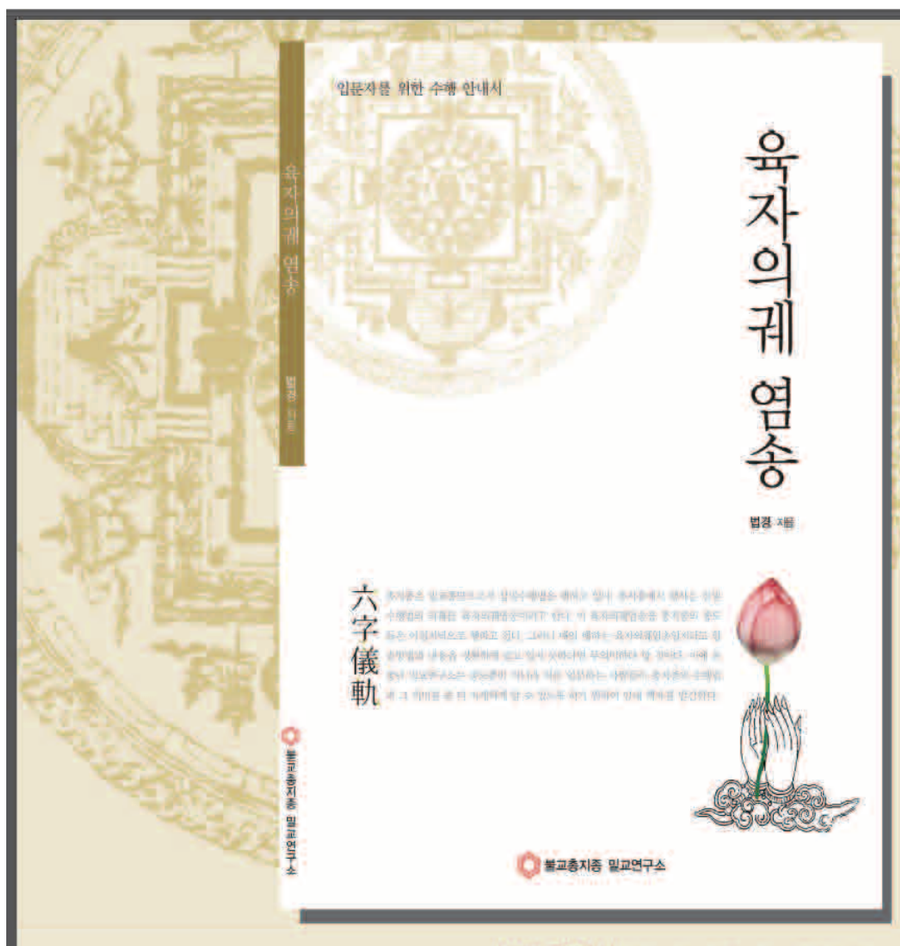
이 『심요집』은 중국 요나라의 도진 선사가 말년에 찬술한 밀교의 의궤서로서, 소승과 화엄·천태·선의 대승교학과 수행법을 아우르면서 현밀(顯密)의 쌍수(双修)를 역설하고, 특히 준제진언에 의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언종자 '람'자를 관(觀)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정수리 위에 '람'( )자가 있다고 관한다.

둘째, '람'자에서 밝은 진주[明珠]나 밝은 만월(滿月)처럼 광명의 빛이 난다고 관한다.

셋째, '람'자가 불[火]로 변하여 정수리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번뇌의 몸인 자신을 모두 불태우는 것을 관한다.

'람'자관을 함으로써 자신의 번뇌망상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져 청정삼매에 들게 된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싣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 영파대회 봉행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나라,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헌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 층 문의. 02-445-2326

총기 45년 10월 불교총지종 주요 불사

괴산 중원사 헌공불사

▲ 중원사 헌공불사에서 법어를 내리시는 효강 종령 예하

▲ 헌공불사에 동참한 대중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인선 통리원장

▲ 중원사 헌공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

총기 45년 '신규스승 법의 및 금가사 수여식' 봉행

▲ 입사선서를 하는 신임 스승들

▲ 효강 종령 예하로부터 행위 품계를 받는 현일 정사

▲ 수여식을 마치고 종령예하를 모시고 기념 촬영

제88회 추계강공회

▲ 제88회 추계강공회에서 법어를 내리시는 효강 종령 예하

▲ 개강불사에서 훈향정공하는 인선 통리원장

▲ 제88회 추계강공회 효강 종령 예하 정신교육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 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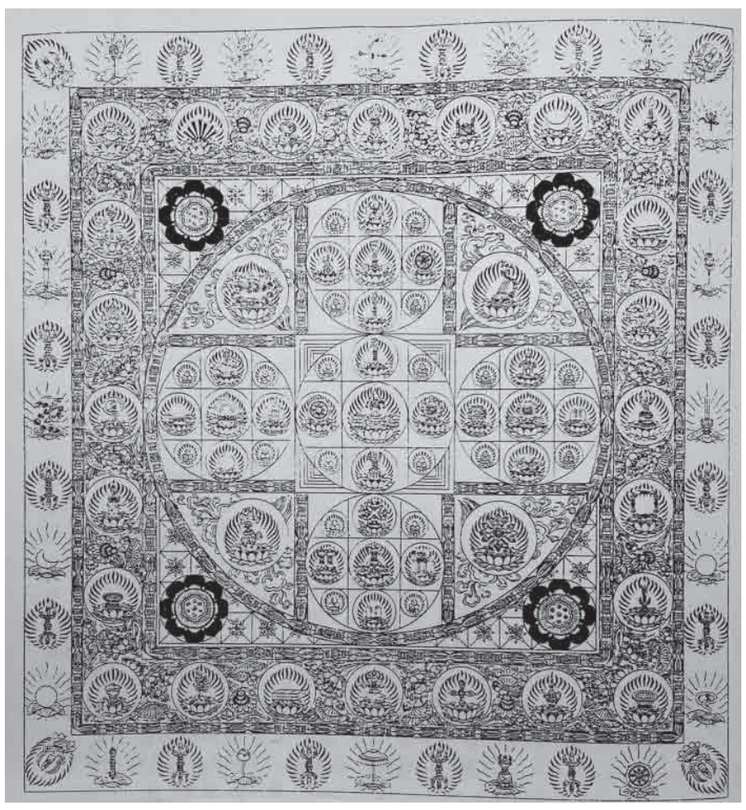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32)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수교)

금강계만다라의 항삼세삼매야회(降三世三昧耶會)



▲ 그림1) 항삼세삼매야회의 구조

항삼세삼매야회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조복(調伏), 즉 항복(降伏)이다. 조복과 항복은 나 자신의 조복, 또 상대방을 위한 조복, 또다른 특정 대상의 조복이 모두 포함된다

그동안 여러 회에 걸쳐 소개해왔던 만다라 이야기를 이번 호를 끝으로 3년간의 기나긴 연재를 마치려고 한다.

원고마감에 쫓겨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완성도 높은 연재를 하지 못해 독자 제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연재를 꾸준하게 읽어 봐주신 불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린다.

부족했던 부분은 더 보충하여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질정을 당부드린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치지만 내년 호부터는 '밀교문화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독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 뵐까 한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난 호에서는 항삼세회(降三世羯磨會)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항삼세회(降三世羯磨會)는 성신회나 기타 다른 회(會)와 마찬가지로 모두 37존 형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 가운데 사인회(四印會)와 일인회(一印會)·이취회(理趣會)을 제외하고 구회만다라의 대부분이 37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똑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번 호에서 살펴 볼 항삼세삼매야회도 마찬가지다. 37존의 형태가 똑같다. 다른 점이라면 그림1)과 같이 불상(佛像)이 아니라 삼매야형(三昧耶形)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삼매야형이란 불보살을 나타내는 불구(佛具)나 지물(持物)을 말하는데, 불보살이 지니고 있는 연꽃, 검(劍), 경전, 염주, 금강저, 탑 등을 말한다. 이 삼매야형으로 그려진 만다라가 구회만다라 가운데 2회가 존재하는데, 꽤 오래 전에 살펴보았던 '삼매야회'와 이번 호에서 살펴 볼 '항삼세삼매야회'이다.

삼매야회는 앞의 성신회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불상 대신 삼매야형으로 그려져 있고, 항삼세삼매야회도 마찬가지로 앞의 항삼세회의 불상 대신 삼매야형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항삼세삼매야회는 지난 호에서 살펴 본 '항삼세회'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삼매야회'와도 공통점을 지닌다. '항삼세회'와의 관련성은 불보살의 서원과 공능이 동일하다는 점이고, '삼매야회'와의 공통점은 불구(佛具)와 지물(持物)로써 만다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항삼세회(降三世羯磨會)는 단순한 방법과 수단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중생을 금강살타가 무서운 분노형의 항삼세명왕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제도하고, 중생의 항복을 받아내는 실천적 활동의 세계를 표현한 만다라이며, 삼매야회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여래의 대서원을 온갖 불구(佛具)와 지물(持物)로 그려져 있는 만다라이다. 이들 두 만다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항삼세삼매야회이다.

항삼세삼매야회(降三世三昧耶會)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항삼세명왕의 분노의 위력을 삼매야로 나타낸 만다라이다. 즉 항삼세명왕의 내적인 신비한 힘이 삼매야로써 상징화하여 표현한 세계다.

다시 말해서 항삼세명왕의 본래의 서원(誓願)으로서 '삼매야'가 활동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앞의 항삼세회와 비교하면, 항삼세삼매야회는 앞의 항삼세회를 그대로 옮겨 오되 불상(佛像)의 존형(尊形) 대신에 제존(諸尊)의 활동을 상징하는 삼매야형(三昧耶形)을 동일하게 모셔 온 것이다.

따라서 앞의 항삼세회가 금강계만다라의 항복의 대만다라로 표현된 것이라면, 그 다음의 항삼세삼매야회는 항복하는 마음의 작용을 삼매야형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앞의 항삼세회가 몸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항삼세삼매야회(降三世三昧耶會)는 내면의 정신적 활동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존상 가운데 항삼세명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은 항삼세명왕이 분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분노의 모습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그 내면에 따뜻한 자비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분노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중생의 번뇌를 깨뜨리는 데 있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밀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모든 것을 불성(佛性)을 깨닫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항삼세삼매야회는 그림2)와 같이 오른쪽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삼세삼매야회는 중생을 제도하는 가르침과 방편으로써 구회만다라에서 최종적인 방점을 찍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의 성신회(成身會)가 깨달음의 입장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활동으로 보았을 때, 이 성신회는 갈마회[근본회]가 되고, 끝에 자리잡고 있는 항삼세삼매야회는 중생제도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생이 수행을 통하여 성불로 가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성신회는 최종적인 종착역이 되고 수행의 첫단계로서 항삼세삼매야회는 출발역이라 할 수 있다. 전자를 구경차제(究竟次第)라 하며, 후자를 생기차제(生起次第)라고 한다.

따라서 항삼세삼매야회는 처음 중생을 제도할 때 쉽게 제도되지 않는 무명중생을 분노[사실은 지혜와 자비]로써 인도하는 모습과 이미 제도된 중생일지라도 퇴전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나태해진 중생을 다시금 분노로써 경각시켜 불퇴전의 수행을 이어 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처음 입문하는 자와 중근기와 상근기의 수행자를 모두 보살피고 있는 것이 항삼세삼매야회의 제존(諸尊)이다. 37존이 모두 그런 역할과 공능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항삼세삼매야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금강살타와 항삼세명왕이다. 비로자나부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 명을 받아서 금강살타가 나선 것이고, 다시 금강살타는 항삼세명왕으로 변화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금강살타와 항삼세명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회장님의 명을 받아 부장이 나서고 부장과 그 아래의 대리가 직접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항삼세삼매야회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조복(調伏), 즉 항복(降伏)이다. 조복과 항복은 나 자신의 조복, 또 상대방을 위한 조복, 또다른 특정 대상의 조복이 모두 포함된다.

즉 나 자신의 번뇌망상을 없애는 수행, 번민과 곤란에 빠진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도, 나아가 국난(國難)을 극복하는 호국도량법회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조복과 항복이다.

원적(怨敵)을 죽이거나 무너뜨리는 것만이 조복(調伏)과 항복(降伏)이 아니다. 참된 수행과 실천이 조복과 항복이다. 수행과 실천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만다라 이야기'를 애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지신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을 후원해 주시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만다라 요양원, 바라밀 공부방, 초록 어린이집, 일원 어린이집, 포레스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공익 복지재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보시행의 근본으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원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사회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합장

진각종 제12대 총인(總印)에 회정(悔淨) 정사 추대

제30대 통리원장에 회성(悔省) 정사 선출
추대법회는 11월 중 봉행될 예정

▲ 진각종 제12대 총인에 회정(悔淨) 정사

▲ 진각종 제30대 통리원장 회성(悔省) 정사

진각종 제12대 총인에 회정(悔淨) 정사(사진위쪽, 현 통리원장)가 추대됐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10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총인원에서 회의를 열고 회정 정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인의회 의원(5명)과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등으로 구성된 총인추대위원에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회정 정사를 5년 임기의 총인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다.

진각종 예경실장 덕정 정사는 총인추대위원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진각종 제12대 총인으로 회정 정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진각종의 법통(法統)과 교법(敎法)의 신성(神聖)을 상징하고 심인법통(心印法統)을 승수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 제12대 총인예하를 추대하기 위한 추대법회는 11월 중 봉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제30대 통리원장에 대구 시경심인당 주교 회성(悔省) 정사(현 현정원장)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10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01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통리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제30대 통리원장 선거를 실시해 회성 정사를 신임 통리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이다.

제30대 통리원장으로 당선된 회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각종이 70년을 맞아 3세대를 맞이하게 됐다. 종단 100년을 대비하는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선대 스승님들께서는 원력으로 종단을 이끌어 오셨다면, 3세대 스승님들은 수행과 교리가 체계화되어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맡은 임무는 통리원장인 만큼 종행정의 모든 부분들 제도(종헌·종법)에 의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의회를 비롯한 현정원, 교육원 등 종무기관과 원만한 관계를 이뤄가면서 이끌어 가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회성 정사는 진기 45(1991)년 신락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불정심인당 주교, 능인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현재 시경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신임 통리원장 회성 정사 취임식은 11월 중 봉행될 예정이다.

태풍 차바 총지종 울산 실보사 침수 피해

사원 차량 및 1층 침수

▲ 태화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실보사

총지종 울산 실보사(주교 덕광 정사)가 지난 5일 불어 닥친 태풍 차바로 사원 1층이 물에 잠기고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가 통리원에 보고한 피해는 그동안 총지종 사원에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중 최대 규모다.

울산 지역에 가장 먼저 찾아온 불청객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이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 바로 옆 울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7채의 집이 완파됐다.

지난 5일 불어닥친 태풍 '차바'는 울산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3명이 숨지고, 147세대 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통리원은 긴급 구호 지원을 위해 만전의 계획을 짜고, 차후에 발생 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상황을 중앙종회에 상정 조속히 북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7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수월관음도'

국립중앙박물관 '수월관음도 기증식 및 언론공개회'

일본에 있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처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올해 초 (주)한국콜마홀딩스의 윤동한 회장은 일본에 있던 수월관음도를 구입하여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에 기증한 것이다.

수월관음도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관음보살의 거처와 형상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 도상은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의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 금강보석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을 선재동자가 찾아뵙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160여 점의 고려불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수월관음도는 화려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인해 고려불화의 백미로 꼽힌다.

수월관음도는 국내외를 통틀어 대략 46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5점이 소장되어 있다.

국내에는 리움미술관에 2점, 아모레퍼시픽미술관과 우학문화재단, 호림박물관이 각각 1점씩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윤동한 회장의 구입과 기증에 따라 국내에 있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는 모두 6점이 되었으며, 국립박물관 소장품으로는 최초이다.

이번 윤동한 회장이 기증한 그림은 14세기 중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크기가 세로 172㎝, 세로 63㎝, 화면 크기는 세로 91㎝, 가로 43㎝이다.

마가 스님, 《나를 바꾸는 100일》 출간

함께하는 30분 자비명상 노트

"100일 후에 일어날 마음의 기적을 꿈꾸며"

"'오늘의 행동' '오늘의 말' '오늘의 생각' 등 마음의 씨앗을 노트에 채워보세요. 하루 30분, 스님과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며 차근차근 기록하다 보면 '행복의 꽃'이 핍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일찍이 자비명상을 개발해 불교적 힐링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마가 스님!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얻는 자비명상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온 자비명상 이사장인 마가 스님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100일 기도 수행법을 집대성한 《나를 바꾸는 100일》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자신에게 맞는 기도법을 찾아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나에게 맞는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소원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스님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100가지의 마음 씨앗을 마음에 되새기며 오늘 잘한 일, 후회되는 일, 고마운 사람, 내일 할 일, 오늘의 마음 이야기 등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참회함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하루하루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행복과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빛나는 순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저자 마가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한 후 속리산 복천암선원을 시작으로 미얀마, 프랑스, 인도에서 수행을 했다. 마음속 근심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자비명상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 2002년 공주 마곡사에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는가 하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학교에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수업을 맡아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스님'으로 유명했다.

최근까지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과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로 있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왔다.

현재 (사)자비명상 이사장으로 있으며, 다음세대희망본부 불교위원회 대표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지도교수를 겸하고 있다.

또한 BBS불교방송 TV 《마가 스님의 마음톡, 그래도 괜찮아!》 마음토크 진행자로 시청자들과 함께 웃고,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고마워요 자비명상》, 《내 안에서 찾는 붓다》, 《내 마음 바로 보기》, 《알고 보면 괜찮은》 등이 있다.

初發心自警文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제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자경문(自警文)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유물로보는 밀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6호

명 칭 : 양산통도사극락암청동반자
(梁山通度寺極樂庵靑銅飯子)

▲ 양산통도사극락암청동반자(쇠북)

현재 무량수전에 걸려 있는 이 청동반자는 직경 85.5 ~ 85.8cm 크기의 대형이다. 측면에 반원형의 고리 두 개가 붙어 있어 원래는 양쪽 고리로 고정시켰음을 알 수 있다.

전면 중앙에는 돋을새김의 태극원문 당좌가 있다. 당좌의 좌우에는 다섯 개의 도드라진 방형틀이 있으며, 그 안에 양각으로 願文을 새겼다.

당좌의 향우측에는 「대황제폐하만만세(大皇帝陛下萬萬歲)」, 「순비저하수제년(淳妣邸下壽齊年)」, 「영친왕저하수제년(英親王邸下壽齊年)」을, 향좌측에는 「황태자전하천천세(皇太子殿下千千歲)」, 「황태자비전하수제년(皇太子妣殿下壽齊年)」 이라는 내용을 주조한 것으로 보아, 청동반자의 제작배경이 대한제국 시기 왕실의 수복과 안녕을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면의 가장자리에는 음각선을 둘렀으며, 후면에는 직경 65.0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측면에는 돋을새김의 원형문을 2열씩 배열하고, 그 안에 옴자를 음각으로 새겨 총 44개의 옴자삽입 원형문을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30. 보탁수(寶鐸手) 진언

나모 바나맘 바나예 옴 아미리 담암베 시리예
시리 탐리니 사바하

만약 일체의 미묘한 범음(梵音)의 소리를 성취하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트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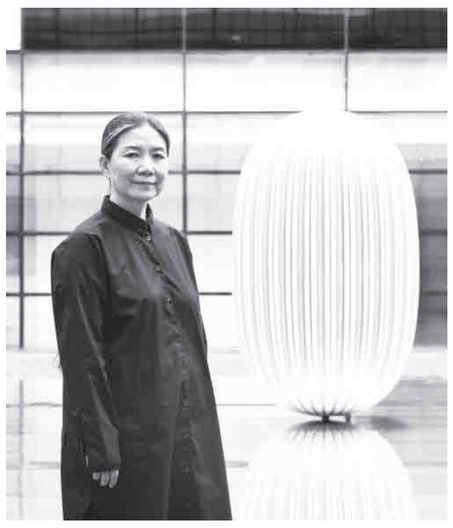
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트롤 수치를 내려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

물질, 비물질을 바라보는 시선

만듦으로 사유하기
보따리에 담긴 허공, 不二 이치 담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김수자-마음의 기하학 殿 7월 27일부터 2017년 2월 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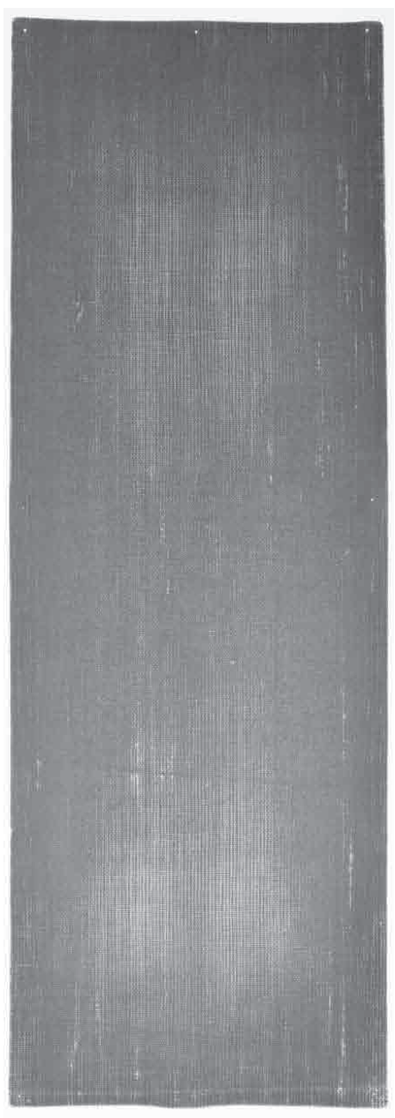
▲ 김수자 작가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이 던진 의문은 무아설을 탄생시켰다. 나는 누구인지, 물질과 허공의 경계는 무엇인지, 불교의 사유관을 담은 작품들이 공개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김수자 작가가 내년 2월 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마음의 기하학'殿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작가는 소리, 빛, 이불보 등을 이용한 장소 특정적 설치, 퍼포먼스, 비디오, 사진 등의 작업을 통해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이슈를 탐구해 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작품에서는 '만드는 행위'에 사유를 입혔다.

▲ 마음의 기하학 포스터

지난 30년간 보따리와 이불보를 이용한 설치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의 창작방식 그리고 행위, 이민, 망명, 폭력과 같은 사회적 쟁점들을 탐구해 온 김 작가는 "그동안 물질성을 통해 비물질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다. 물질성과 비물질성, 안과 밖, 삶과 죽음, 내부와 외부, 남성과 여성 젠더 문제 등 이중성에 의문을 갖고 삶과 예술의 근거로 답을 나름대로 제시해 왔다. 이 시점에 현대차의 도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초대에 힘입어 지속하고 있던 의문 보따리를 풀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이번 전시를 설명한다.

김수자 작가는 지난해 개인전 '호흡'을 메츠퐁피두 센터에서, 개인전 '실의 궤적'을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었다. 또한,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 개인전인 '호흡-보따리'를 개최한 바 있다.



▲ 몸의 기하학, 2006-2015, 작가의 요가메트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이 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적 쟁점에 대해 탐구하는 김수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전시작에서 사유의 흔적을 만나다

'마음의 기하학/Archive of Mind'

전시제목이기도 한 이 작품은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 얽힌 규범적인 문제에 관해 작가가 사유한 바를 제시한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직접 작품에 개입하는 참여형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작품. 작가는 캔버스의 기능을 겸하는 19m 길이의 타원형 나무탁자 위에 관람객이 찰흙 덩어리를 구(球)형으로 만들어 놓도록 요청했다. 과거 '보따리'라는 작품을 선보여온 작가는 '보따리'라는 개념을 물질과 비물질을 감싸는 방법론으로 풀이했던 데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을 구상했다. 작가가 요구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찰흙을 감싸며 굴리는 순환적인 행위는 관객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물질로, 다시 물질에서 무(無)로 전환되도록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두 손바닥에 가하는 균형적인 힘 사이의 양극성을 체험하도록 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손 안에서 구현되는 순간이다.

▲ 몸의 연구, 1981

'구의 궤적/Unfolding Sphere'(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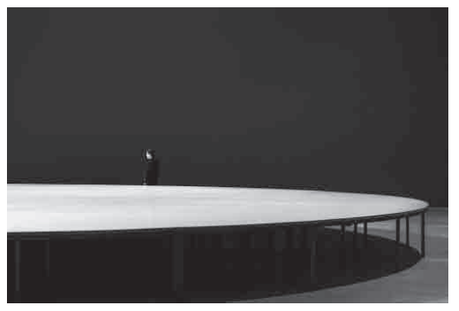
이번에 새로 전시한 사운드 퍼포먼스 신작 '구의 궤적'은 구형의 찰흙이 갖고 있는 표면의 기하학적 구조를 소리의 실타래로 풀어내며,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구형들과 조응하며 우주적 조형성을 드러낸다.

'몸의 기하학/Geometry of Body'

이 작품은 2006년부터 작가가 사용했던 요가 매트로 작가의 손과 발이 닿은 흔적들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요가를 하는 동안 작가의 신체적 움직임과 중력을 비가시적인 차원으로 담아 낸 이 요가 매트는 작가의 회화 작업에서 보여준 신체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낸다.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을 완성하며 신체가 그려낸 동작은 정신과 몸이 혼연일체가 되는 삼매의 순간이다. 몸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개념의 회화이다.

'몸의 연구/A Study on Body'

1980년대 초에 신체, 평면, 그리고 공간의 역학구조에 대한 실험으로 작가의 퍼포먼스를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온 작가의 프로젝트-'보따리/Bottari', '보따리 트럭/Bottari Truck', '바늘 여인/A Needle Woman', '몸의 기하학/Geometry of Body' 등 - 에 드러난 세계의 수직적 수평적 구조에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 마음의 기하학, 2016

'숨/One Br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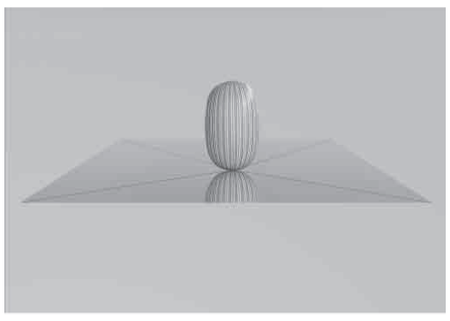
작가가 바느질을 중단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제작한 디지털 자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호흡 사운드 퍼포먼스 '직물 공장/The Weaving Factory'(2004)의 음파 그래픽의 한 숨을 디지털 자수로 수놓은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 만들어 내는 파동은 직물 사이를 누비는 바느질을 통하여 그 구조와 형식을 보여 준다. 음과 양, 삶과 죽음의 순환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은 같다는 것을 드러낸다.

'연역적 오브제/Deductive Object'

작가의 신체를 직접 캐스팅해 제작한 조각. 테이블 위에 두 팔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형태로 놓은 작품이다. 양 손의 엄지와 검지는 서로 맞닿아 있어서 '비움', 혹은 '허공성(虛, void)'을 드러낸다. 물질의 비물질화로 전개되어 온 작가의 작업 과정 속에서 이 작품은 물질화를 통한 비물질성을 제시한다.

'실의 궤적 V/Thread Routes V'(2016)

작가는 2010년 이후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 중인 영상 작품 시리즈 '실의 궤적/Thread Routes'의 새로운 챕터(Chapter V)를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했다. 총 여섯 개의 챕터로 구성된 '실의 궤적/Thread Routes'은 직물 문화의 퍼포먼스적인 요소와 자연, 건축, 농업, 젠더 관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조적 연관성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은 내러티브가 없는 시각적 시이자 인류학으로 여겨져 왔다. 신작 다섯 번째 챕터는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나바호족과 호피족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촬영됐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애리조나의 쉽락과 캐니언 드 셰이,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뉴멕시코의 차코 문화가 간직한 폐허 같은 건축적 환경 등 지질학적으로 경이로운 경관을 배경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기념비적인 형상들은 직물을 짜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행위와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정제된 기하학적 구조와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세계'라는 직물을 짜고, 감싸고, 풀어내는 행위에 대한 작가의 인류학적 탐구의 정점을 보여준다.



▲ 연역적 오브제, 2016, 철, 페인트, 거울

'연역적 오브제/Deductive Object'

마당에 설치한 야외 조각으로 '우주의 알'로 알려진 인도 브라만다의 검은 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보따리의 기하학'의 또 다른 표현으로, 브라만다 형태를 보따리로 형상화하여 오방색 띠를 두른 타원체로 나타난다. 작품 하단의 거울평면은 그 대각선의 중심에서 타원형의 오브제를 지지하는 플랫폼이자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로 기능한다. 이 작품은 작가의 초기 작업부터 지속된 신체와 기하학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준다.

전시장 밖 전시마당에 있는 야외 조각인 '연역적 오브제' 작품에 대해서 김 작가는 "보따리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재정의하는 분석작업과 동시에 하나로 재통합하는 작업이다. 그 아래에 깔린 거울은 바로 우주가 물질과 비물질 사이의 공간을 거울을 통해 볼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호흡/To Breathe'(2016)

필름 설치 작품인 '호흡/To Breathe'는 특수필름을 이용한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으로, 공간의 허공성(虛, void)을 건축물의 표면으로 확장하고 보따리의 개념을 빛의 언어로 비물질화함으로써, 회화에 대한 작가의 초기 명상의 결정체를 보여준다.

지난 30년 동안 작가는 세계의 수직수평 구조에 근거한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와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질문들로부터 작품들을 전개해 왔다. 보따리를 통해 색즉시공의 진리를 담아내고, 거울을 통해 물질과 비물질의 다르지 않음, 불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불교적인 소재를 쓰지 않고도 가장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해낸 김수자 작가의 작품에서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의 정체를 만날 수 있다.

강지연 구성작가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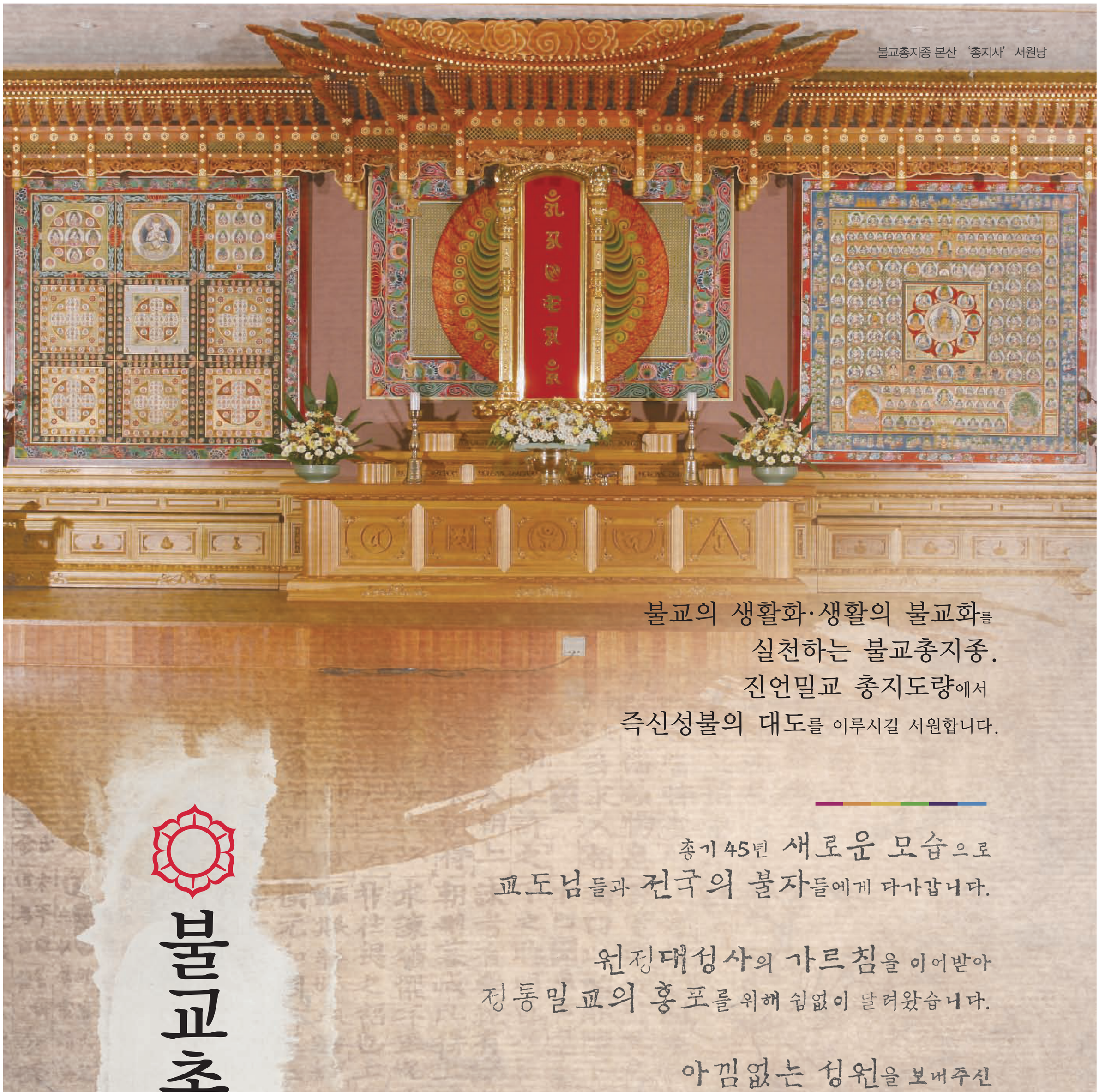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염음 : 법경 종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불교총지종 / 인쇄 : 동림기획
면수 : 250쪽 / 법보시 가격 :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02)552-1080~3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서 원 사 항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2. 사업 원만 발원
3. 취업 원만 발원
4. 건강 원만 발원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6. 학업 및 수능 시험 원만 발원
7. 업장 소멸 발원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10. 참회 발원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14. 지혜 총명 발원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 45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홍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